

칼빈주의 5대 교리¹⁾

김효성 목사

서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여러 교리들과 성경 구절들에 연관되어 있고 기독교 교리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교회 역사상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 교파들이 나뉘었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 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다.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은 칼빈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의 원죄와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고 중생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고 아담의 타락 후에도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만일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사상은 종교개혁 시대에 소시너스가 주장하였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한다.

중세의 **천주교회**는 원죄를 인정하나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부정했고 중생을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적 사건으로 보았다. 이것을 **신인협력설(神人協力說)** 혹은 **반(半)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른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원죄와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고 중생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후에, 루터교회는 루터의 견해에서 후퇴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본 강의는 2018년 8월 21일 (화) 합정동교회(서울 마포구 독막로 26)에서 모인 제12회 보수장로교친교회 모임에서 한 것이다.

17세기 초에 일어난 **알미니우스주의**(Arminianism)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생케 하시는 은혜에 협력하거나 거절함으로 구원을 얻거나 얻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 천주교회의 신인협력설로 돌아갔다.

웨슬리-알미니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사람의 무능력이 제거되어 성령의 구원 사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알미니우스주의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17세기 초, 화란에서 베자의 제자이었던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사람의 자유 의지를 믿게 되었다. 그가 죽은 다음해인 1610년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항의하는 5개 항목의 항의서를 제출했고, 1618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르트 대회**가 소집되었다. 그 대회는 84명의 대회 회원들과 18명의 정계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 48명은 화란인들이었고 나머지는 영국과 스코트랜드 등 외국인들인 국제적 회의이었다. 154회의 회의들과 다수의 협의 회들이 열렸다. 그 대회는 1619년 5월 도르트 신경(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을 발표하였다.

알미니우스주의(항론과 Remonstrance)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로 작정하셨다. 즉 선택과 정죄는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다(요 3:36).

(2)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즉 그의 속죄 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도되었고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해 충분하였다(요 3:16; 요일 2:2).

(3)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선행적(先行的) 은혜.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참된 선을 성취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생케 하심이 없다면 구원적 믿음에 도달

1.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할 수 없다(요 15:5). 신자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선행(善行)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prevenient grace)의 산물이다.

(4) 성령의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다(행 7장). 그들의 주장은 결국 신인(神人)협력설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이다.

(5)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상실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솔로몬과 가룟 유다의 예).

도르트 대회는 항론파(알미니우스주의)가 주장하는 이상의 다섯 개 항목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도르트 신경**을 선언하였다. 도르트 신경의 주요 내용은 **칼빈주의의 5대 교리**로 알려졌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는 어느 개인의 의견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기를 원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문제는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다.

1.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첫 번째 교리는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의 교리이다. 첫 사람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罪責)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을 뿐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죄성(罪性)도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죄책이란 죄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말하고 죄성이란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원죄로 인해, 사람은 지성의(知情意) 전체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죄악된 욕망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때때로 선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1.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이르게 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 죄(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6:2).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싫증나며 무능력하며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나온다(6:4).

사람은, 죄의 상태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으므로; 본성적 사람으로서는, 그 선을 완전히 싫어하며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9:3).

사람의 전적 부패성

성경은 사람의 전적 부패성을 밝히 증거한다. 대표적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21,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사야 64: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義)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사람의 행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아누쉬 𐤀𐤍𐤔𐤁)[절망적이게 사악한(KJV), 치료할 수 없는(NIV)] 것은 마음이라.” 시편 58:3,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걸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로마서 3:10-12,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고린도전서 2:

1.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됨이니라.” 에베소서 4:18-19,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의 전적 무능력

성경은 또 사람의 전적 무능력도 증거한다. 특히, 다음의 여러 성경 구절들은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예레미야 13:23,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斑點)을 변할 수 있는뇨? 할 수 있을진대[만일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로마서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8:7-8,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건전하다고 보았고, 반펠라기우스 주의는 사람은 병들어 연약해졌다고 보았으나, 성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명기 30:11, 14의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1.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은 ‘네가 이를 행하도록 [네 마음에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사람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은 구약성경의 역사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이다. ① 창세기는 노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강포하고 죄가 가득함으로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음을 증거한다. ②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했음을 증거한다. ③ 사사기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범죄와 징벌의 역사를 증거한다. ④ 왕국의 역사서들(열왕기, 역대기)은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로 인해 결국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음을 증거한다. 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범죄했음을 증거한다. ⑥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음을 증거한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밝히 증거한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전적 무능력의 교리는 다른 교리들에 기초가 된다. 이 교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곧 중생에서의 하나님의 단독 사역 등이 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2.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하신 행위이었다. 실상,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위임을 보인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들의 회개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할 많은 성경구절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선택하심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밝히 증거한다. 요한복음 6: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9,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주신’이라는 원어들(데도케 δέδωκε 혹은 데도카스 δέδωκας)은 완료시제이며 하나님의 선택이 확정적임을 보인다. 사도행전 13:48,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라는 원어(테타그메노이 τεταγμένοι)도 완료시제이다. 로마서 8:30,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에베소서 1:3-5,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주권적, 무조건적**이었다. 요한복음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께 오는 자 곧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께 나와 믿는다. 요한복음 10:26,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다. 로마서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15-16,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판케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2,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들의 회개와 믿

2.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음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무조건적 선택을 밝히 증거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수단들도 포함**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6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셨을 때 그의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계획에 의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택하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救贖)되고; 정한 때에 활동하시는 그의 영에 의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養子)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오직 선택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救贖)되거나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養子)가 되거나 거룩해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죄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베소서 1:4,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디모데후서 1:9,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택함 받은 죄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인간편에서 전도와, 회개와 믿음과, 순종 등의 자발적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버려두심

선택의 진리는 또한 버려두심의 진리를 내포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가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두셨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버려두심의 교리는 천주교회, 루터교회의 다수, 알미니우스주의, 웨슬리주의 등의 심한 반대를 받아왔으나, 어거스틴, 루터, 칼빈과 개혁신교회가 믿는 바이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성경구절들은 버려두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다. 출애굽기는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고 증거한다(출 4:21; 7:3; 9:12; 10:27; 11:10). 사무엘상 2:25, “그들[엘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사야 6:9-10,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마지막 말씀은 신약성경에 6번이나 인용되었다(마 13:14-15; 막 4:12; 눅 8:10; 요 12:40; 행 28:27; 롬 11:9-10).

요한복음 17:9,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로마서 9: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11-12,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희를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8,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유다서 4,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정죄]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2.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버려두심에는 두 측면이 있다. 즉 지나쳐 버리심과 정죄하심이 그것이다. 지나쳐 버리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신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죄하심은 적극적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지나쳐 버리신 자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 공의로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적(法廷的) 행위이며,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그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게 된다.

사실상,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었으나,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되고, 나머지는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버려져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나쳐 버리심을 받고 정죄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버려진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버려두심의 진리는 두려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결코 불평거리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버리셨을지라도 인류는 불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버려두심의 진리는 비록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진리가 아닐지라도 모든 신자가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이다.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사람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가? 구원의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 진리는 구원받은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하며 또한 그에게 참된 겸손과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준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결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적 예정에 근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부지런하고 성실히 힘써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세 번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의 교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속량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에 대해서는, 역사상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보편속죄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속죄설이다. 보편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구원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런 견해를 가진다. 이와 구별하여, 제한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면 인류 중 일부 즉 그가 영원 전에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전체를 위해 즉 인류 전체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만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보장(保障)의 문제와도 관계되며, 또 전도할 때 전도자의 실제적 마음가짐에도 관계된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 오직 사람 자신의 결심에 달려 있는가, 혹은 달리 표현하여, 하나님께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서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신가라는 점이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한성을 성경적 진리로 고백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근거는 다음 3가지 요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 가르치며 또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친다. 시편 3: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요나 2:9,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마태복음 19:24-26,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로마서 9:16, 18,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4:12, “[하나님께서서]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 외에도, 마태복음 16:17,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행전 11:18, “하나님께서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16:14,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신명기 29: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예정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도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증한다. 요한복음 6:39,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도 행전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사람의 구원이 오직 자신의 결심(회개와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셨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런데 보편속죄설은 사람의 구원이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긴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실 수 없고 또 변화시키시려고도 하지 않으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행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지 않다면, 선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인류 전체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자기 양들에 대해 분명히 증거한다.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10:15,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7:9,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여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증거한다. 호세아 11: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한다. 이사야 53:5, 6, 8,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 .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또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도 구원의 제한성을 암시한다. 이사야 53:11-12,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의롭다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히 담당하리라. . . .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마태복음 20:28,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28,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심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부정한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만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나머지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믿는 보편구원을 주장하지 않는 한--보편구원론은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알미니우스주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그들의 보편적 속죄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옹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가 죄로 멸망하는 인생을 관망만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옹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을 영원한 멸망에 버려두셨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속죄는 실제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속죄의 본질적 성격에 있다.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도행전 20:28,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는 결코 헛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수께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서 어떤 사람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가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영원 전에 선택된 자들, 곧 그의 양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들, 바로 그가 피흘려 사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멸망 받을 죄인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속죄의 본질적 성격상 땀값을 주고 사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속죄설은 논리적으로 보편구원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보편구원론은 성경적 진리일 수 없다. 마태복음 7:13,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23, 24,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 . .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존 오웬(John Owen)은 제한속죄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증명했다.

성부께서 그의 진노를 부과하시고 성자께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은 (1)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든지, (2) 일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든지, 혹은 (3) 모든 사람들의 일부분의 죄들을 위해서이다. 각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마지막 경우가 참되다면,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두 번째가 참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가 참되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가? 불신앙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한다. 나는 묻는다. 이 불신앙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만일 그것이 죄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형벌을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것이다. 만일 주께서 받으셨다면, 왜 그것이 주께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서 대속하신 그들의 다른 죄들 이상으로 그들에게 방해가 되어야 하는가? 만일 주께서 그것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는 말이 될 것이다.

보편속죄설을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

에스겔 18:2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11도 비슷한 말씀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함과 의로움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살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가 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의 적극적 의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위에서 언급된 성경 진리들, 특히 선택에 관한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대속 제물로 오셨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신 대속 제물이셨다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마지막 심판과 지옥 형벌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속죄는 실제로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보편구원론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또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긍정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도의 제한 속죄를 증거하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세상’은 대략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실상,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온 세상, 온 인류를 대표한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도 알미니우스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구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 빛 아래서 볼 때,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증거할 뿐이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의 전적 부패성에 대해 너무 분명하게 증거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도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등의 분명한 성경 진리의 빛 아래 해석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의지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만일 이 구절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제한성을 보이는 구절들, 특히 선택의 진리의 구절들과 모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도 다른 구절들과 조화시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경의 어떤 구절의 의미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의 명백한 진리와 모순될 때, 우리는 그 구절에 대한 가능한 다른 해석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가능한 해석이 있다.

(1) 이 구절은 에스겔 18:23과 비슷하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가 곧 그의 적극적 구원 의지와 동일하지는 않다.

(2)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대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

3.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다. 성경에서 특히 디모데전후서에서 ‘모든’이 대략적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 많다. 디모데전서 2:1,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되].” 디모데전서 4:15,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5: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디모데후서 1: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디모데후서 4: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앞에 인용한 구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고 대략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선택된 자들 모두’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2: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근거 구절로 인용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믿어야 할 이유들과 조화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대략적 의미 혹은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1)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든지, (2) 각계 각층의 사람 모두를 가리키든지, 혹은 (3) 엄격히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4.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다”는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들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 구절에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 즉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한속죄의 진리는 어떤 이들이 오해하듯이 전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선택과 속죄 뿐 아니라, 또한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필수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를 믿는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진리들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담대히, 낙심치 말고 전할 수 있는 것이다.

4.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네 번째 교리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이다. 성경은 구원을 중생(重生,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중생이란,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 결과, 중생한 자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중생을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고 본다. 이 진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다는 성경 진리를 전제로 한다. 로마서 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3:23,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는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죽은 영혼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의 활동에 협력할 수도 없다. 죽은 자는 중생 시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 중생에 있어서 그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4.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가 주의 음성에 협력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겔 37장).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 활동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중생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중생에서 사람의 의지는 협력적 원인이 될 수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들을 중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한다.

에스겔 11:19,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요한복음 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5, “물과 성령으로(ἕ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중생의 원인자이심을 보인다. 사도행전 16:14,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 지라.” 고린도후서 4: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에베소서 2:1,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4-5, “궁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디도서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 . .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시키실 때 주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을 중생의 수단으로 표현하기도 한

5. 성도의 견인(堅忍)

다. 야고보서 1:18,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유아들의 경우는 다르나, 성인들의 경우, 중생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동시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오직 전도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중생을 영혼의 지배적 성향의 변화라고 본다(벌코프). 중생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셨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 결과, 중생한 자의 영혼의 성향, 의향, 즉 마음가짐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는 새 마음을 받는다(겔 36:26; 엡 4:22-23). 비록 옛 죄악성이 그의 인성에 남아 있어 자주 실수하기도 하지만(롬 7장), 그의 영혼의 이 새 성향은 의를 지향하고 의만 지향한다. 그것은 다시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악성에 굴복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원리이다(요일 3:9).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다. 중생한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된다(요일 2:29; 3:10; 4:7; 요 1:12-13; 요일 5:1).

5. 성도의 견인(堅忍)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다섯 번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堅忍)의 교리이다. 성도의 견인(堅忍, perseverance; 끝까지 견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교리는 다른 말로 구원의 보장에 대한 진리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1,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있게 부르시며 거룩케 하신 자들

5. 성도의 견인(堅忍)

은 은혜의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성도의 견인(堅忍, 끝까지 견딤)을 명백히 가르친다. 요한복음 10:27-2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 . .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1:6, “너희 속에 착한 일[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디모데후서 1:12,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구원의 일을 포함함]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베드로전서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러한 명백한 구절들뿐 아니라,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원**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이다. 요한복음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30,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에독사제 ἑδόξασε)은 부정과거시제로서 미래의 확실한 사건을 나타낸다.

5. 성도의 견인(堅忍)

예정된 자들은 남김없이 다 영화롭게 된다. 디모데후서 2:19,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의 완전성이다.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 . .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6:39, “. . .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로마서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 . .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히브리서 7: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셋째, 성령의 인치심이다. 고린도후서 1: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13-14,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바라며 그를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그 얻으신 것의 구속(救贖)의 때까지 우리의 기业的 보증이 되사”(재번역). 에베소서 4:30,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救贖)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은 보증이다. 이렇게 보증된 자들은 중도에 실패할 수 없다.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심도 이와 관련된다. 로마서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갈라디아서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5. 성도의 견인(堅忍)

니라.” 베드로전서 1:3-4, “. . .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끝까지 견디어 영광에 이를 것이다.

개신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35, 37-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 .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구원의 확신이 믿음에 본질적 요소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견해가 둘로 나뉜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에 본질적 요소라고 본다.²⁾ 그러나 다른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에 본질적이지 않고 단지 믿음의 열매라고 보았다.³⁾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1-4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2) 루터, 멜랑톤은 구원의 확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게할더스 보스, 루이스 벨코프 등은 구원의 확신을 믿음에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3) 프란시스 투레틴, 찰스 핫지, 로버트 맵니 등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

5. 성도의 견인(堅忍)

...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를 진실히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 이 무오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는데 ...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한 보장도 확신하는 것은 확실히 복된 일이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반론**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견인의 교리가 성화에 대한 권면에 반대된다고 반론한다. 물론 성경에는 성화에 대한 권면들이 많이 있다. 로마서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계시록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나 이 말씀들은 권면받는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사람의 자발적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또 어떤 이들은 견인의 교리가 성도를 나태와 방종으로 인도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편의 근면과 성실한 노력 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며, 성도의 견인의 확신은 도리어 성화를 위해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어떤 이의 표현과 같이 “위험한 시간에 불기둥“과 같다.

5. 성도의 견인(堅忍)

또 어떤 이들은 견인의 교리가 배교의 경고에 반대된다고 반론한다. 물론 성경에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마태복음 24:4-5,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1:20-22, “. . .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이 말씀들은 신자들 중에 어떤 이가 배교하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경고가 수단으로 사용됨을 증명할 뿐이다. 배교에 대한 경고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교의 가능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또 어떤 이들은 견인의 교리가 배교의 예들에 반대된다고 반론한다. 성경에는 배교의 예들이 없지 않다. 디모데전서 1:19-20,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디모데전서 4:1,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후서 2:17-18,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2:1-2,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러나 배교자들이 한 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들이 참으로 중생하고 구원 얻은 자들이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속하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요 도적이요 깨끗지 않은 자이었다(요 6:64; 12:6; 13:10-11). 히브리서 6:4-6과 10:26-29의 말씀들도 배교의 경고 혹은 예들에 관련된다고 본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성경적이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5. 성도의 견인(堅忍)

구원을 보장하신다.

결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문제는 사람의 죄성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의 문제이다. 사람이 죄성이 없다고 본 펠라기우스의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이 죄성이 있지만 약화된 정도라고 보는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사람의 죄성이 전적으로 부패된 것이라고 보는 칼빈주의의 생각이 옳은가? 또 이것은 결국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과연 구주이신가? 아니면 구원은 결국 사람의 선택의 문제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구원의 절대주권이 있으신가라는 문제이다.

칼빈주의는 시종일관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 즉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는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까닭은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이 분명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 그 다른 견해들은 오늘날 다른 교파들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다른 교파적 확신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기보다 다른 견해, 다른 교파로서 포용해야 한다고 본다.

믿음은 하나이다(엡 4:5). 그러나 현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었다. 그것이 교파가 되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 문제는 기독교 본질에서의 이탈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도 교파가 달라도 한 교회 안에 있다고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롬 14:22).